

북중미 월드컵 최악 성적 ‘예견된 참사’

축구협회 무능·불통… 감독 선임 절차 공정성 논란
승부 조작 축구인 등 기습 사면 시도 등 불신 자초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최상의 대진표에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흥명보호를 두고 ‘예견된 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2024년 7월 흥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 때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감사와 징계 요구, 이에 반발한 대한축구협회의 행정소송 제기 등이 뒤따르면서 오롯이 월드컵 준비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 축구는 혼돈의 시간을 보냈다.

협회는 대표팀이 이번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 그동안의 비난을 잠재우고 싶었겠으나 흥명보호가 1승 2패, 조 3위라는 참담한 성적으로 32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그동안 참고 기다려준 축구 팬들의 분노는 폭발했다.

국가대표팀 감독이 새로 뽑힐 때마다 잡음은 늘 있었다.

그러나 4년 넘게 대표팀을 이끈 파울루 벤투 감독이 2022 카타르 월드컵을 끝으로 물러난 뒤로 위르겐 클린스만과 흥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협회의 무능과 부실, 폐쇄성이 정부 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3년 2월 클

린스만 감독 선임은 국가대표전력 강화위원회 기능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전력강화위원들이 위촉되기 전 감독 후보군을 추렸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최종 면접은 전력강화위원장이 아닌 정몽규 협회장이 직접 진행했다. 이사회 선임 절차도 누락됐다.

세계적 스타 플레이어였던 클린스만 감독은 이름값에서는 역대 대표팀 사령탑 중 최고이고, 2006 독일 월드컵 때 독일을 3위로 이끄는 등 감독으로도 성과를 냈으나 현장

지도자로 공백이 길었고 전술적 역량에도 의문 부호가 따라다니던 중이었다.

이렇게 해서 뽑은 클린스만 감독은 결국 전술 부재, 재택근무 논란, 선수단 관리 능력 부실 등으로 경질 여론에 시달리다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2024년 2월 아시아 축구연맹(AFC) 아시안컵 4강에서 요르단에 제 탈락한 뒤 해임됐다.

이런 뼈아픈 실패를 겪고도 협회는 후임으로 흥명보 감독을 선임할 때도 실책을 되풀이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당시 정해성 위원장이 사임하자 권한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이사가 최종적으로 감독 후보를 추천하고, 면접 과정도 불투명·불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제대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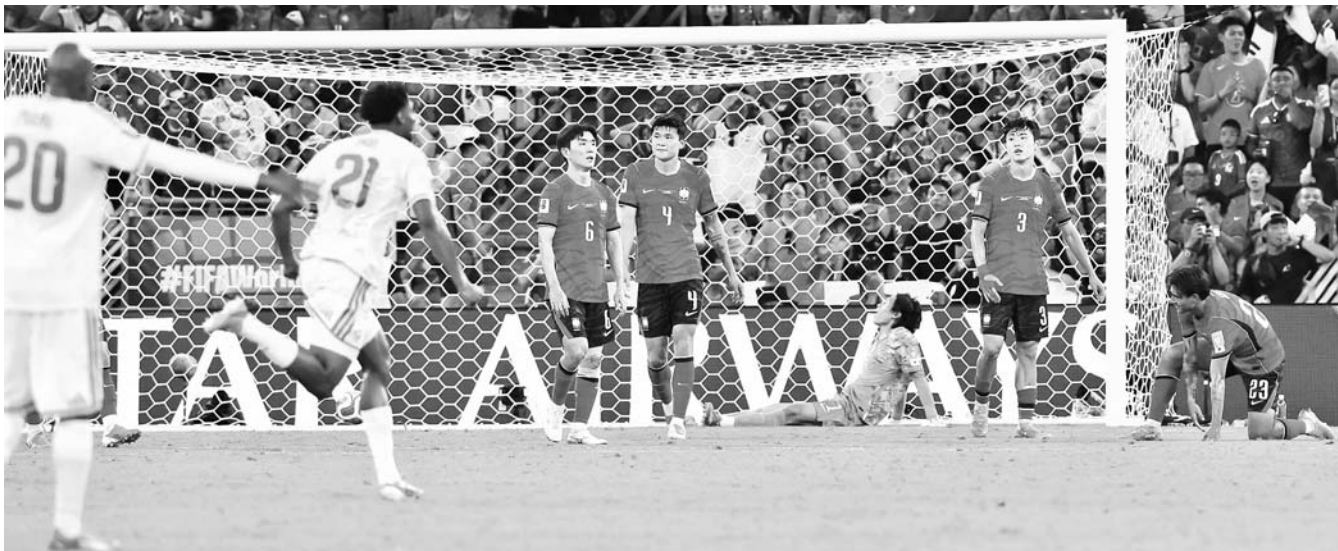
협회의 잘못은 이뿐이 아니다.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천안 코리아풋볼파크) 건립 업무 과정에서 문체부 승인 없이 대출받고 보조금을 허위 신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협회는 2023년 3월 우루과이와 국가대표팀 평가전이 열린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이사회를 열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을 기습적으로 사면하기로 해 축구 팬들의 불신을 자초하기도 했다.

사면 발표는 우루과이전을 불과 1시간 앞두고 이뤄졌고, 이후 논란이 커지자 협회는 사흘 만에 이 결정을 전면 취소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한국시간) 멕시코 몬테레이 스타디움에서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실점하자 선수들이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25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제주대 임동균 우승… 박종성 조 1위

임동균(제주대)이 대학검도 전국 정상에 오르며 지난해 준우승에 머물렀던 한을 풀었다.

지난달 30일 제주특별자치도검도회에 따르면 임동균은 26일부터 28일까지 경북 청송군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25회 회장기 전국대학검도선수권대회’ 3학년부 개인전에서 우승했다.

지난해 결승에서 허리 실점을 허용하며 준우승에 그쳤던 임동균은 올해는 압도적인 집중력으로 상대



임동균

박종성

를 제압했다.

임동균은 1회전에서 이인호(조선대)를 상대로 손목과 머리치기를

잇달아 성공시키며 2대0 완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유준혁(대전대, 1:0 승), 박찬의(한국체대, 2:0 승)를 연달아 제압하며 준결승에 올랐다. 이어 4강에서 유현석(성균관대)을 1대0으로 꺾은 뒤, 대망의 결승전에서 김형진(대전대)마저 1대0으로 누르고 당당히 전국 정상 자리에 우뚝 섰다.

박종성(제주대)의 활약 역시 매서웠다. 박종성은 안형빈(영상대), 강현민(우석대), 이정환(조선대)을 상대로 연이어 2대0 승리를 거둔 뒤, 조태훈(성균관대)까지 허리와 머리치기로 2대0으로 제압하는 등 매 경기 상대를 압도했다. 박종성

은 이어 김승민(경북대)에게 아쉽게 패하고 나용빈(목포대), 김환희(대전대)와 비겼으나, 대회 전반을 지배하는 탁월한 기량으로 조 1위라는 기록을 달성하며 당당히 대학상비군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검도회 김창구 회장은 “우수한 선수들이 전국을 제패하는 성과를 내고 있지만 도내에는 실업팀이 전무한 상태”라며 “제주가 곁들여 키워낸 고학력·고기량의 검도 우수 인재들이 졸업과 동시에 ‘인재 유출’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 검도의 맥을 잇고 지역 스포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위영석기자



2026 코리야오픈 장애인펜싱대회에서 동메달 4개를 따낸 제주펜싱 선수단.

2026 코리야오픈 장애인펜싱대회 제주선수단 동메달 4개 획득

제주 장애인 펜싱선수단이 ‘2026 코리야오픈 장애인펜싱대회’에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며 제주 장애인펜싱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달 30일 제주자치도장애인펜싱협회에 따르면 24일부터 26일까지 서귀포 대정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A등급 안진섭은 사브르 개인전에서 뛰어난 집중력과 기량을 발휘해 3위에 오르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 A등급 우진주 선수는 플뢰레, 에페, 사브르 개인전에서 모두 3위를 차지하며 동메달 3개를 추가해 이번 대회에서만 총 3개의 메달을

목에 거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성과는 장애인체육 발전과 장애인펜싱 저변 확대를 위해 훈련환경 개선, 대회 참가 지원, 우수 선수 발굴과 육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걸쳐 꾸준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는 권영복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펜싱협회장의 뒷받침 결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펜싱협회는 앞으로도 장애인펜싱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에 힘쓰는 한편,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영석기자 ysw1968@ihalla.com

제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 모집

1~14일…18세 이상 도민 대상으로, 1100여명 주자 선정 계획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07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릴 성화봉송 주자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

성화봉송은 두 체전의 출발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제주의 자연과 역사, 문화가 담긴 봉송 구간을 따라 도민이 희망의 불꽃을 이어갈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제주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체전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약 1100명의 봉송 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봉송 주자는 7월 중 개별 유선으로 안내되며, 8~9월 온·오프라인 주자 교육을 진행한다. 선발된 주자는 9월 10~11일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과 10월 14~16일 전국체전 성화봉송 주인공으로 나선다.

봉송 구간은 모두 120여 개로 구성된다. 향후 경찰·소방·체육회 등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거쳐 도민이 접근하기 좋은 구간으로 정해진다.

봉송은 구간별로 주주자 1명과 호위주자 9명 등 모두 10명이 한조를 이뤄 참여한다. 완주한 주자에게는 유니폼(운동화 포함)과 활동 실비, 기념품, 기념사진을 제공한다.

위영석기자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강극장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 제주 10: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0:30 중계방송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선관위 국정조사 2차 기안보고 12:00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크 특선 지명수배 14:00 KBS 뉴스 14 14:10 걸어서 세계속으로 트레킹블로그 14:30 중계방송 투표용지 부족 진상규명 선관위 국정조사 2차 기안보고 16:00 시사간편 17:00 KBS 뉴스 5 17:30 탐나는 제주	5: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프랑스·스웨덴 8:1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9:0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멕시코·에콰도르 12:2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13:10 인강극장 스페셜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스페셜 15:00 KBS 월드컵 뉴스 15:15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하이라이트 18:35 2TV 생생정보 19:50 일일드라마 붉은 진주 20:30 슈퍼맨이 돌아왔다 21:50 누난 내게 여자가 2 23: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23:50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잉글랜드·콩고민주공화국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 전국시대 8:50 첫 번째 남자(재) 9:30 930 MBC 뉴스 9:45 기분 좋은 날 10:45 뽀빠리 좋아좋아 스페셜 11:15 찾아가는 꾸러기교실(재) 11:45 주라기캡스 4(재) 12:00 12 MBC 뉴스 12:25 오늘N(재) 13:25 최고의 애정카드 13:55 2시 뉴스 외전 15:55 기분 좋은 날(재) 16:55 5시 뉴스와 경제 17:10 PD수첩(재) 18:05 오늘N 19:05 첫 번째 남자 19:40 MBC 뉴스데스크 21:00 놀러코스터 스페셜 22:30 라디오스타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15 JIBS 아침 뉴스 7:40 모닝와이드 3부 8:40 J.방울 8:50 수상한 방송국 9:55 SBS 10 뉴스 10:30 중계방송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회 국정조사 12:00 SBS 12 뉴스 12:45 위시켓 매직카드 13:00 보석아내 건강 수다 14:00 뉴스브리핑 15:30 애도·결례리 16:00 내로세모 17:00 JIBS 저녁 뉴스 17:10 테마스페셜(재)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구경의 여행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8:20 어린 철학자 9:20 미리 가본 대학 10:35 최고의 요리비결 12:10 왔다! 내 손주 13:25 EBS 광성학교 16:55 수상한 방송국 17:20 강형스반대 파이어로보Z 17:50 처음 배우는 AI 19:45 세상을 나쁜 개는 없다 9:00 KCTV 9시 뉴스 10:00 탐나는 보이스 11:00 KCTV 11시 뉴스 11:30 삼촌 맹심합서대 12:40 KCTV시청자 세상 13:40 여권 들고 등극 스페셜 15:30 인터뷰 제주공간 16:00 공원에 반하다 17:10 지역이 묻고 국회가 답한다 17:50 어쩌다 어른 19:30 황금나침반 7:10 박성태의 뉴스쇼 9:00 그대 창가에 일렉스입니다 12:00 CBS 뉴스 14:05 이불구경의 여행기요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7:30 박지환의 뉴스톡 530 18:00 박재홍의 한판승부 20:00 CBS 뉴스 7:00 출발! 제주대행진 9:00 스투디오 1055 14:05 TBN 차차차 16:00 TBN 제주매거진 18:05 달리는 라디오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KBS 064)740-7331 / ☎ MBC 064)740-2432 / ☎ JIBS 064)740-7800 / ☎ KCTV 064)741-7723 / ☎ 제주CBS 064)748-7400 / ☎ TBN제주교토방송 064)717-8114				

오늘의 운세 1일

김종상 지단(組長)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협 교수(010-5233-6136)

36년 외출이나 활동 할 일이 생긴다. 상대의 의견을 경청하는 지혜가 필요. 48년 문서운이 길하나 재물에 지출 또는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60년 갑작스런 만남이나 모임이 있다. 72년 분실, 건망증이 오니 물건·재물관리에 신경. 84년 생각이 잘 맞는 파트너가 생기거나 기쁜 소식이 온다.

37년 의욕이 증기하고 활력이 넘치니 마음껏 활동. 49년 자식에 대한 일로 신경이 예민하고 추진하는 일은 다소 지체된다. 61년 자만하면 되던 일도 안되는 법, 여유와 이해가 필요. 73년 반가운 소식이나 초대매 갈 일이 생긴다. 85년 마음 고생이 심하나 번거로운 일을 만들거나 두 가지 일을 하면 몸살만 난다.

38년 망신 또는 금전적 손해가 따르니 주의하며 주변사람을 다소 조심. 50년 좋은 만남 또는 기쁜 소식이 있으나, 신경 쓸 일이 생긴다. 62년 물이 흐르듯 애정사망의 말도 나에게서 중요하니 경쟁하는 자세가 좋다. 74년 직장인은 병에 또는 상사로부터 인정 받는다. 86년 과감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

39년 생각이 깊어서 악수를 두는 격이나 긍정적 사고를 갖자. 51년 부하 직원이나 애정사망 때문에 신경이 예민해진다. 신규사업은 금물. 63년 사사로운 감정이 있어 풀려나. 안 풀린 굴이 깊어지고 다시 보기 어렵다. 75년 이성교제 다가온다. 기존자는 가정불화. 87년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경쟁하지 마라.

40년 충언과 간언을 구별하는 귀가 필요. 52년 다양한 생각으로 고민이 많다. 의욕이 강한 활동인에게는 전략이 생긴다. 64년 자녀의 직업으로 동분서주. 세일즈는 매출이 증가. 계약이 원만하다. 76년 동업이나 창업을 심사숙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 즉흥적, 조급함은 실패의 원인. 88년 만남이 길하고 순조롭다.

41년 순리에 따르면 만사형통. 서두르면 불리하니 여유를 가져라. 53년 건강에 무리가 따르니 원행은 삼가. 65년 일과 업무에 몰이 분주하다. 자식에게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77년 목표를 향해 적극 추진하라. 직장인은 변동하지 말 것. 89년 하는 일이 진척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걷는 것과 같다.

42년 돈 때문에 가정에 큰 소리가 있다. 투기나 파소비 금물. 54년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영영하면 이익이 있다. 66년 경쟁자 라이벌의 등장으로 심기가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78년 서류작상에 실수 또는 문제가 있으니 중요계약은 다음으로 미뤄라. 90년 현실에 만족하라. 과욕은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43년 돈 문제로 고민이 있으며, 고부갈등이 있다. 55년 음주에 신경을 쓸 것. 경찰이 나를 반갑게 바라보다. 67년 부부간에 불화 갈등이 있고 이성간의 불륜은 찌갈음 받는다. 79년 활동성 있는 취직이나 직업이 생기니 원하는 조건에는 미흡하다. 91년 형제 형제가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니 마음을 평온하게 한다.

44년 사업자는 회복이 되어간다. 깨끗하게 하면 더 유리하다. 56년 동업이나 신규창업을 하고자 분주하다. 철저한 시장조사와 자금력이 필수. 68년 기존자는 가정에서 논쟁, 미혼자는 이성간 불화가 오고 간다. 80년 아르바이트생이나 임시직은 고민이 많다. 92년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며 건강관리가 필요.

45년 기쁨이 생기고 문서상 이익이 증가하니 몸을 아끼지 마라. 57년 수입도 있으나 지출도 만만치 않다. 교육비 증가가 생긴다. 69년 말거진 일을 잘 수행하니 옛사람의 칭찬이 반갑게 나를 맞이한다. 81년 새로운 시작. 변동수가 있다. 대인관계를 최대한 활용하라. 93년 갈망하는 일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46년 착각과 일시적 환란으로 실수를 하니 분실수 조심. 58년 관절염이나 신경통이 발생. 멀리 출타 금치. 70년 원하는 결과나 능력에는 스스로 만족을 못하니 추진하는 업무에 인정받는다. 82년 현실을 직시하라. 환상과 낭만의 추억은 훗날 기억하고 조기 귀가. 94년 친구들의 우애가 있어 든든하다.

47년 대인관계 친화력으로 인정받는다. 59년 인생은 도전이다. 의타심과 계몽을 벗어 던지고 넓은 세계로 기지개를 펴라. 71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며 창업, 취업 길하다. 83년 재물지출 손재수가 있으며 돈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다. 95년 정신적 스트레스가 올 수 있으니 마음을 넓게 갖는 여유가 필요.